

민주당 가상자산 특별대책 TF, 건전한 가상자산 생태계 조성을 위한 전문가 간담회 개최

더불어민주당 '민생우선실천단' 산하 '가상자산 특별대책 TF'(팀장 김병욱 국회의원)는 박홍근 원내대표와 함께 오는 7월 25일(월) 오전 10시 반 국회의원회관에서 전문가 간담회를 개최한다.

이번 일정은 건전한 가상자산 생태계 조성을 위한 전문가 간담회로, 국회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등 정부, 교수, 변호사 등 전문가가 함께 모여 가상자산과 블록체인 시장의 발전 방향과 규제 방향에 대한 심도깊은 논의를 이어갈 예정이다.

최근 보스턴컨설팅그룹에서 발표한 '자산의 미래 2020' 리포트에 따르면 한국의 2026년 가상자산시장 규모는 1000조원에 이를 전망이다. 가상자산 시장이 이렇게 빠르게 성장하는 가운데, 올해 5월 초 '테라·루나 사태'가 발생하며 대규모 투자자 피해가 발생한 이후 가상자산 전문 대형 헤지펀드 및 대출업체 등 파산과 인출 중단 사태가 잇따르며 투자자 보호 문제가 부각되고 있다.

한편, 가상자산 산업의 글로벌 경쟁도 심화되고 있다. 이에 미국, 유럽연합(EU) 등은 빠르게 가상자산 관련 법안을 마련하며 관련 산업을 뒷받침하고 있다. EU 27개 회원국은 지난달 가상자산의 명확한 정의와 발행조건, 거래소 규제사항 등이 담긴 세계 최초 가상자산 기본법 '미카(MiCA)'에 합의했다. 미국과 영국도 관련 법안을 본격적으로 논의 중이다. 우리나라도 가상자산 관련 법안이 국회에 발의되었지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가상자산 특별대책 TF' 김병욱 팀장(더불어민주당, 성남시 분당을)은 "가상자산 규제는 가상자산 시장이 빠르게 변화하고 국가 간의 경계가 없다는 점도 감안해야 한다"며, "메타버스와 NFT 같은 현실과 가상세계를 연결한 가상자산이 새로운 금융 상품으로 자리 잡고 있고, 중개인 없는 예치 및 대출 등이 가능한 Defi, DEX 등 온라인 직거래 서비스도 속속 출시되고 있는 만큼 이용자는 보호하되 시장은 건전하게 발전할 수 있는 제도 마련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한편, '가상자산 특별대책 TF'는 제도적으로 정비되지 않은 가상자산 시장이 성장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투자자 피해를 직접 점검하고, 투명하고 안전한 거래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제도적 개선점을 마련하기 위해 지난 6일 출범하였다. 이후 업비트 투자자 보호센터에 현장 방문하여 이용자 보호 현황을 점검하였다.

2022. 7. 22.

 **더불어민주당** **민생우선실천단 가상자산 특별대책 TF** **팀장 김병욱**

[참고자료]

민주당 민생우선실천단 가상자산 특별대책 TF 간담회(안)

□ 행사 개요

- 일 시 : '22. 7. 25(월) 오전 10시 반
- 장 소 : 국회의원 회관 306호(정책위 회의장)
- 취 지 : 최근 테라 루나 사태와 해외 업체들의 도산이 이어지며 투자자 보호에 대한 이슈가 부각됨. 이와 함께 가상자산은 국경이 없어 글로벌 경쟁 확보를 위한 건전한 산업 발전도 필요. 이에 투자자 보호와 건전한 산업 발전 환경 조성을 위한 법제도 확립을 위해 국회, 정부, 전문가와의 소통의 자리를 만들고자 함
- 참석자(안) : TF 소속 위원 및 정부, 전문가
 - 국회 측: 박홍근(원내대표), 김병욱(팀장), 운영덕(간사), 노웅래, 백혜련, 민병덕, 양기대, 한준호, 이수진(비례, 원내대변인)
 - 정부 측: 금융위원회(위원장), 금융감독원(부원장), FIU
 - 전문가: 교수(박선영, 김승주), 변호사(황현일), 박사(김갑래, 최화인)

□ 세부 일정(안)

※사회: 운영덕 간사

시간일정	내 용	비 고
10:30 ~ 10:40 (10-15)	■ 참석자 소개 ■ 박홍근 원내대표 모두발언 ■ 김병욱 가상자산 특별대책 TF 팀장 모두발언 ■ 정부 측 모두 발언 ※기념촬영	
10:45 ~ 11:25(40)	■ 정부 ■ 전문가 - 자유 질의응답	세미나실 ※기념촬영 후 언론 비공개 전환
11:25 ~ 11:30(5)	■ 박홍근 원내대표 마무리 발언	